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인터뷰

강말실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위원회 창립 36주년 특집

응답하라 1981

옛 그림과 차 한잔

대원군과 민영익의 묵란도

2017
Vol.202

4





“나는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 나 좀 버리지 마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버려진 동물이 8만 마리를 넘었다.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월 20일 공포되었다. 1년 후인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동물을 유기하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등록의무나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있다. 한 대선 후보자는 ‘동물 복지 5대 공약’을 발표하여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제발 쫓~”

CONTENTS

2017 April Vol.202

홈페이지 www.pac.or.kr

언론중재 Eye-Net people.pac.or.kr

 pacblog.kr

 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7년 4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계문사 T 02-725-5216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02 클로즈업

04 인터뷰

강말실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06 위원회 창립 36주년 특집

응답하라 1981

07 미디어트렌드

댓글 저널리즘 논쟁

08 연중노트

성희롱이라 쓰고 성추행이라 읽는다

09 심리학브런치

말을 해야 알아요

10 세상읽기

기다림

11 영화 속 설득이야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가치

12 옛 그림과 차 한잔

대원군과 민영익의 묵란도

14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15 웹툰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종이책의 의미를 생각하다

강말실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현) 사계절출판사 대표
2005년 한국백상출판문화상 편집부문 수상
2004년 간행물윤리상 출판인쇄상 수상

66

책읽기의 중요성은 수백 번 말해도 모자람이 없다.
책읽기가 선사하는 깊은 지식과 사고의 기회는 어떤 경험으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독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출판계는 불황, 사양산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일까?
강말실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을 만나 한국 출판계 현황과 전망을 얘기해보았다.

99



Q | 지난 2월 우리 출판계를 대표하는 단체 중 하나인 한국출판인회의 10대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재임 중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궁극적인 목표는 '책 읽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출판사들이 내적 역량을 키워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는 기획과 프로모션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대로 된 출판문화산업의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출판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니다. 일례로, 문체부로부터 진흥, 발전기금을 받는 곳이 관광, 체육, 문화예술, 영화, 언론 등 7개 분야인데, 출판 분야는 아예 진흥기금이 없습니다. 정부가 출판을 사양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2017년 콘텐츠산업에 대한 예산은 3239억 원인 데 반해 출판산업은 고작

196억 원입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등 IT화된 분야만 콘텐츠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콘텐츠의 핵심은 책인데, 책에서 탄생하는 2차 창작물만 콘텐츠로 다루고 있어요. 정부로부터 출판진흥기금 마련에 대한 확약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지난 2월 16일 문체부가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정가제 보완, 출판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법제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편, 출판기금 확충, 출판유통구조 선진화, 도서관 확충과 도서구입비 예산 증액, 독서진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 역시 출판계의 과제입니다.

Q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상 '도서정가제'를 3년마다 재검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입 3년 차를 맞는 올해, 도서정가제 관련하여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최근 들어 독특한 기획의 작은 서점들이 생겨났고 다양한 종류의 도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완전한 도서정가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10퍼센트 할인과 5퍼센트 마일리지 적립으로 할인율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며, 여전히 많은 편법이 난무합니다.

우선 서점, 특히 온라인 서점에 대한 도서 공급률 조정이 필요합니다. 출판사가 서점에 납품하는 책 단가의 정가 대비 비율을 공급률이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서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팔릴 것을 염두에 두고 60~65퍼센트의 공급률로 책을 납품해왔는데,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독자에 대한 할인폭은 최대 15퍼센트로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의 공급률은 오르지 않아 온라인 서점의 마진만 커진 셈이죠.

기업화된 중고서점도 문제입니다. 신간마저도 구간처럼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신간도서의 판매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지요. 현행 법률상 발행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재정가로 가격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중고서점 역시 이 정도의 기준은 지켜야죠. 기업화된 중고서점에 대한 판매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완전도서정가제가 실행될 경우 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A | 도서정가제 이후 통계를 보면 물가 상승률 대비 소비자가는 신간 5.2퍼센트, 구간 40퍼센트 이상이 하락했어요. 책의 주재료인 종이 값은 계속 상승하지만 이 상승률을 가격에 반영하면 경쟁력이 없어서 마냥 그럴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완전도서정가제를 통해 이전보다 높은 공급률로 책을 서점에 납품할 수 있다면 거기서 발생한 이익만큼 소비자에게 반영해 더욱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책값이 계속 올랐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완전도서정가제에 대한 대독자 설득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Q | 지난 1월 초 ‘송인서적’ 부도가 출판업계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우리나라 출판(유통)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 현재 출판업계는 도매상이 출판사로부터 책을 사서 서점에 공급하는 위탁거래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출판사는 출고된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도매상이 가정한 판매 예상치에 따라 합의한 금액을 수금하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유통 구조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90년 대 이미 서점판매 정보관리시스템(POS) 도입을 시도했으나 서점의 반대로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나, 모든 출판사가 도서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오톨스(ONIX)제도의 도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선진화된 유통 시스템을 비로소 갖추게 됩니다.

몇 개월 뒤 현금화시킬 수 있는 어음결제 관행도 큰 문제예요. 송인서적이 발행한 어음이 현금화하지 못한 채 만기일이 돌아가 출판사가 자신의 돈으로 어음을 결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점에 이미 배포된 책은 물론, 아직 서점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송인서적 창고에 쌓여있는 출판사 책들 역시 돌려받거나 처분하기 어려워 자산 손실은 더욱 큼니다. 송인사태 이후 어음제도를 없애고 팔린 만큼 현매로 거래하려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송인서적의 채권단,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힘을 합쳐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송인서적이 지속적인 이윤을 냈던 곳이고, 출판사가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서는 주식 형태로 떠났겠다는 동의가 67퍼센트를 넘으면 출판인들 중심으로 송인서적을 공격으로 새롭게 키워갈 수 있는 좋은 시험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종이책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책의 미래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A | 책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책은 독자들에게 정보를 비롯해 재미와 감동을 줄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 사회적 이슈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시대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체이기도 하지요. 언론은 사주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책은 밝혀야 할 진실이 있다면 두려움 없이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매체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책을 이전만큼 읽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는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메시지의 힘 때문에 책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Q | 정보를 얻는 수단이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독자들의 눈에 띄는 책을 만드는 게 더욱 어려워졌을 텐데, 대표님이 출간을 기획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영화든 음악이든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같은 책도 읽을 때마다 매번 다른 목소리로 나에게 얘기해주잖아요. 것처럼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을 만드는 것이 출판인으로서 제가 가진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 ‘어떻게 기획하고 표현할 것인지, 어떤 패키지와 프로모션으로 독자에게 접근할 것인지’는 저를 포함한 모든 출판인들의 당면과제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SNS의 발달로, 한 권의 책을 내면 알려야 하는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졌어요. 제가 운영하는 출판사의 경우 분야별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저자 인터뷰나 작업 과정 등을 동영상으로 보여준다거나, 차별화된 홍보를 기획해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효과도 좋아서 그림책이나 혹은 마니아가 집중되어 있는 분야의 책의 경우, 빠른 속도로 확산됩니다. 신문이나 다른 매체에 기대지 않고 자체 홍보채널을 통해 독창적인 방법으로 책을 홍보하고 독자를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이밖에도 종이책은 물론이고 그 밖의 책의 형태도 다양하게 기획해 독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Q | 책 한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대표님 ‘인생의 책’은 무엇인가요?

A | 박상진 교수의 <궁궐의 우리나무>, 숲을 좋아하는 제가 가장 아끼는 책입니다. 무등산 호랑이라 불릴 정도로 산을 좋아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저는 세 살부터 아버지 따라 산을 다녔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무와 꽃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어떤 꽃인지, 어떤 나무인지 항상 궁금했죠. 숲처럼 켜안고 살다가 2001년에서야 숲해설가 과정을 이수했고, 5년 이상 주말마다 숲해설가로 활동한 적도 있어요.

두 번째 책은 살아가는 내내, 진정한 자유로움이 원지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읽을 때마다 제 내면의 질문에 대해 다른 답을 주는 책이지요.

응답하라 1981

지난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뀐 셈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맞춰 위원회 역시 새로운 시도와 함께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36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지요. 위원회의 서른여섯 번째 생일에 즈음하여 언론사람은 첫 언론중재 사건을 돌아보며 ‘초심’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언론중재 사건

1981년 4월 29일 위원회는 현판식과 함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5월 7일, 두 건의 언론중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한 사건의 신청인은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1981년 4월 고려대학교 영토문제연구실 발족기념 학술기념회 독도 관련 강연 내용을 발췌해 보도한 것에 대해 중재를 신청해 왔습니다.

신청인은 독도를 처음 발견한 서양인과 그 시점이 잘못 기재되었으며, 발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저작을 인용한 것이므로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일 뒤인 12일 첫 중재심리가 열렸고,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이 취하함으로써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부산일보와 경남신문에 실린 여고생 관련 기사였습니다. 해당 신문들은 한 여고생이 불량배에게 욕을 당한 후 이를 비판하여 4층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려다 중태에 빠졌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상은 여고생이 시험공부를 하다 밤늦게 귀가하던 중 자신을 범하려는 범인에게 반항하며 다급하게 달아나다 옥상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잘못된 보도내용으로 딸이 학교에 나가는 것은 물론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자진해서 정정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재불성립 이후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두 언론사에서 속보 형식의 정정 기사를 다시 한번 게재함으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역중재부 첫 사건

1981년 7월 8일 부산중재부를 시작으로 전남, 강원, 충남, 충북, 경기, 대구, 전북, 제주까지 9개의 지역중재부가 차례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지역중재부의 첫 사건은 부산중재부에 접수되었습니다.

부산일보는 1981년 7월 한 아파트 건설업자가 분양계약금과 공사대금을 떼먹고 달아나 무주택자 40여명에게 1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업자는 기상조건과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 아파트 완공예정일이 3개월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계약금과 공사대금을 떼먹고 달아난 것은 아니라며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7월 27일 열린 심리에서 신청인과 부산일보는 속보 기사를 통해 신청인이 분양계약금을 챙겨 잡적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밝히기로 합의했고, 7월 28일 해당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1981년 위원회는 약 8개월 간 총 44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9건에 대해 조정기 성립되었습니다. 2016년 기준 3,170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2,201건에 대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데 비하면 미미한 수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미한 시작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위원회 역시 존재하지 않았겠죠. 언론과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위원회가 완수해야 할 과업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을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세요.

댓글 저널리즘 논쟁

소중한 독자 의견을 가려낼 해안 필요

한국은 기사의 독자들이 주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댓글을 작성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언론사 사이트의 댓글이 아직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8월에 미국 공영라디오방송국(NPR)이 댓글 기능을 없애기로 하면서 댓글에 대한 저널리즘 논쟁이 다시 한번 불거지기도 했다. 언론사의 댓글은 독자들의 의견 개진을 위한 창구이자 민주적 토론을 위한 공공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댓글 기능이 사라진다면 저널리즘의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기사 댓글에 대한 세계 언론사의 현황과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그 전망을 예측해보자.

기사 댓글이 중요한 이유로 토론장의 기능을 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언론사는 악성 댓글이나 트롤* 때문에 기사 댓글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남아공 최대 온라인뉴스 사이트 <뉴스24>는 인종 차별에 관한 댓글이 늘어나 댓글 기능을 중단해야만 했다. 개인적 악성 댓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적으로 독자나 신문사의 분노를 도발하는 트롤링이 성행하면서 언론사의 댓글 운영이 심각한 위기에 당면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당시 러시아 트롤이 독일 <쾰트도이치차이팅>에 몰려가 조직적으로 트롤링을 했고, 해당 신문사의 댓글 운영을 멈추게 했다. 남중국해 분쟁 이후 중국 트롤이 <필리핀스타>의 댓글 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부정적 댓글은 언론사의 브랜드 이미지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부정적 댓글에 언론사는 어떻게든지 대응해야만 한다. 댓글 관리를 다른 회사에 외주를 주는 언론사도 있고, 아예 댓글 기능을 폐쇄하는 언론사도 있다. 최근에는 기사 댓글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로 넘기는 언론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언론사로서는 기사 댓글 관리 자원과 인력을 소셜미디어

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다. 뿐만아니라 이렇게 바꾼 후에 더욱 많은 댓글이 달리며 소통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문제는 있다. 댓글 관리의 주체가 소셜미디어가 되기 때문에 언론사의 소셜미디어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다. 한국에서 언론사가 포털사이트의 정책과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한 형국이다. 페이스북이 자체 알고리즘을 바꾼 후에 기사 트래픽이 급감했는데 언론사는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다. 즉 댓글을 소셜미디어에 이관하는 것은 편리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만, 독자와 관계를 맺는 데 주도권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다.

댓글이 단지 부정적이지만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론사도 있다. 수준 높은 댓글 토론이 이뤄지는 것으로 유명한 <뉴욕타임스>는 품격 있는 댓글 커뮤니티를 이루기 위해 많은 투자와 관리를 아끼지 않았다. 댓글 관리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편집자가 직접 나서서 댓글 이용자와 소통하기도 했다. 좋은 댓글을 선정하기도 하고, 소수 의견도 무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악성 댓글과 트롤은 철저히 차단했다. 댓글의 양보다 질을 추구한 <뉴욕타임스>의 전략은 성공적으로 평가되며 어느 언론사보다도 탄탄한 독자와의 관계를 유지해 부러움을 사고 있다.

기사 댓글을 민주적 토론의 장으로 보면서 관리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소셜미디어에 모두 맡기고 기사 작성에 더욱 공을 들일 것인가? 이는 언론사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방법이 옳고 그르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사 댓글이 독자의 의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언론사가 보듬어야 할 영역인 것은 분명하다.

* 트롤 : 인터넷에서 고의적으로 논쟁을 일으키고,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의 낚시성 게시물을 올리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게 대한 공격적이고 불쾌한 언사를 통해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것 - 편집자주

성희롱이라 쓰고 성추행이라 읽는다

“예전에 여직원에게 했던 부적절한 발언이 성희롱으로 판정받아 징계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성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어떤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는지 상세하게 서술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성추행범으로 인식하게 해 피해를 입고 있다”

누군가가 위와 같이 말했다면 나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몇 번을 되물었을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다. 자신이 성희롱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달라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조사관 업무를 시작한지 고작 한 달 남짓한 신입조사관에게 시련(?)이 닥쳤다. 청각장애인이 조정신청을 한 사건이 우리 중재부에 배당된 것이다. 위원회가 조정업무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사례가 하필이면 이제 겨우 업무를 이해하기 시작한 신입조사관 앞에 떨어진 것이다. 막막했다. 도움을 받을 곳도, 참고할 만한 자료도 없었다.

우선, 신청인과의 의사소통이 힘들었다. 청각장애인과 통화를 하려면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문자로 통화를 요청하면 신청인이 통화지원 서비스를 통해 문자로 내용을 전달한 것을 나에게 읽어준다. 청각장애인들이 서로 통화할 때는 오히려 편하다고 한다. 영상통화를 이용해 상호간에 수화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화를 못하는 나는 통화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성희롱, 성추행 등에 대한 보도내용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3자가 듣는다는 점과 통화지원 서비스 담당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이 겹쳐져왔다. 결국 신청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화, 문자, 메일 등 모든 통신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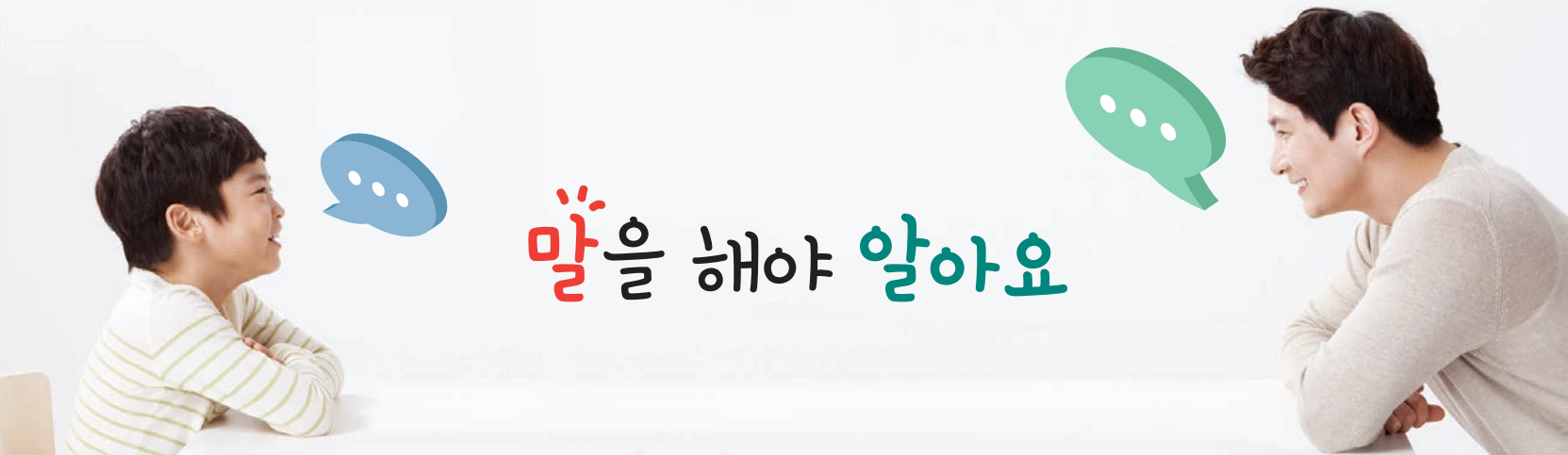
다음으로, 전문용어의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신청인의 주장을 이해하려 해보자. 왜 신청인은 성희롱으로 적시한 보도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있다고 역시 주장하며, 나아가 왜 언론이 본인의 성희롱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수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었다. 수어(手語) 상에서 성희롱과 성폭행을 뜻하는 표현은 있지만 성추행에 대한 표현은 없었다. 즉, 성추행과 성희롱은 같은 수어

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궁금증이 풀리기 시작했다. 기사를 직접 보지 못하고 수화로 전해들은 신청인의 주변 사람들은 신청인이 성추행을 했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청인은 굳이 본인의 잘못이 ‘추행’이 아닌 ‘희롱’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다.

드디어 심리하는 날이 되었다. 수화통역사의 선서와 함께 심리는 시작되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기사의 핵심과 동떨어진 내용일 뿐 아니라, ‘성희롱’을 ‘성희롱’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신청인 역시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심리 과정에서 양 측은 조금씩 양보하였고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합의 과정이 수화통역을 거쳐서 진행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청각장애인은 물론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언론조정을 신청하고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세계를 이상한 헛소리로 치부할 수 있다. 세상에는 아직 내가 잘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느끼게 되었다. 나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세계를 이해하고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오래되고 익숙한 관계일수록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노래처럼 말이죠. 가족인데, 친구인데, 애인인데 꼭 말해야 마음을 아나?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아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친절을 베푼 뒤 상대방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을 때 '저 사람이 진심으로 고마워한다'고 느끼는 경우는 5%에 불과합니다. 오래된 관계에서는 알아서 이해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이 더욱 퇴화하게 되는데요. 식당이나 커피숍, 대중교통 등에서 친절을 베푼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기와 하루에 한번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기를 연습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의외로 후자가 더 어려우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확신이 의사소통의 결핍돌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범인 2명을 포함해 15명이 사망한 콜럼바인 참사의 가해자 부모가 쓴 <나는 가해자의 부모입니다>에서 범인인 아들이 2년간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부모에게 숨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기 난사 며칠 전에 남긴 비디오테이프에서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잘해 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족끼리는 서로를 잘 아는 만큼 서로에게 마음을 숨기기도 더 쉽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구박 받은 것,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창피를 당한 것, 친한 줄 알았던 이웃 사람이 내 뒷담화를 했다는 것을 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아끼는 사이라서 걱정할까 봐 그러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표정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지分辨하는 얼굴인식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무표정을 자신을 비난하는 표정으로 인식했으며 우울증 환자들은 다른 사람의 표정도 슬픈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타인의 표정을 인식하는 우리의 '사회적 뇌'가 모르는 사람의 표정

을 더 잘 인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아는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안 좋은 것 안 보여?" 아니 어떻게 압니까. 말을 해야 알죠. 게다가 오랜만에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우울한 것을 알지 언정,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을 곁에서 보면 익숙함 때문에 우울하고 처진 표정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알아주면 고맙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배우자가, 부모님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것이냐고 해석을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왜 그러는지 물어보시라고 합니다. 말을 걸면 싸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긴장이 올라간 상태에서 묻기 때문입니다. 저도 진료할 때는 "학교 친구가 괴롭혀서 학교 가기 싫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괴롭히는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차분하게 묻습니다. 반면 저희 애가 집에 와서 "다른 친구 000가 괴롭혀서 속상해요"라고 하면 일단 안타깝고 화부터 납니다. 아이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닌데도 긴장된 상태로 묻다 보니, 목소리가 일단 다릅니다. 감정이 묻어있는 질문을 들으면, 아이는 더 이야기를 잇기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괴롭힘을 당한게 잘못된 건가? 저렇게 화를 내니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차분하게 물어보기 어렵다면 '20분 원칙'을 적용해보세요. 긴장과 관련된 교감신경이 내려가는 시간으로 20분이 지나면 신경의 흥분이 가라앉아서 훨씬 더 차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힘들었구나'라고 공감만 하고 20분 있다가 자세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감정을 섞어서 묻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진심을 말하는 것도 어렵고 듣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의 변화를 통해 관계가 변하고 삶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다림



이 코너의 원고 청탁을 받고 무엇을 쓸까 생각해봤다. 코너 이름이 ‘세상읽기’라서 시대조류를 담아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조바심이 들기도 했다. 우리나라 대중들의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에 쏠려 있을 때라 오히려 평범한 주제로 눈을 돌리고 싶었다. 그래서 ‘봄나들이’로 정하고 모처럼 취재하는 기분도 느껴볼 겸해서 시내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에서 두세 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와 엄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와 까꿍놀이를 하면서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어난 엄마가 까르르 웃는 아이를 대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청주시의 가장 변화가인 성안길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모자가 내릴 채비를 하길래 먼저 내려서 이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엄마는 아이보다 앞서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를 도와주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를 번쩍 들어 버스에서 내려놓거나 뒤에서 겨드랑이를 잡고 내려주는데 이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린 모자가 차량통행 제한구역인 성안길로 들어서자 아이는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며 혼자 걷기 시작했다. 엄마 역시 아이의 뒤를 종종걸음으로 뒤따를 뿐 아이의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아이는 제법 많은 나들이 인파와 함께 봄맞이를 하려는 듯 아장아장 발길을 옮겼다. 그러다가 아이는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사람과 스치면서 넘어졌다. 그때 엄마는 아이를 넘어지게 한 사람에게 눈웃음을 지으면서 걱정 말고 그냥 가라는 듯 손을 흔들었다. 그러더니 아이의 앞으로 몇 발자국 걸어가더니 아이를 바라보고 엉거주춤하고 앉았다. 아이에게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 다가오라고 손짓을 했다. 아이는 일어나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바지를 털고 지남철 앞의 쇠불이처럼 엄마 품속으로 빨려 들었다. 그런 다음 두 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을 잡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골목으로 사라졌다.

이들 모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은 장성한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봤다. 남매를 데리고 청주 어린이회관에 갔을 때의 일이다. 오빠인 큰애가 다섯 살로 세 살인 동생과 ‘미리 보는 미래생활’ 전시공간에서 지금은 흔해빠진 영상통화를 하면서 세 시간 넘게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아내와 나는 지루함을 참느라 하품을 해대기 바빴던 기억이 있다.

이보다 더한 것은 1993년 여름과 가을의 주말을 대전세계박람회장에서 보낸 기억이다. 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작은 아이가 1학년일 때인데 전시관 한 곳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만 하루 보내기를 여러 번 하여 열세 번이나 박람회를 다녀왔다.

용혜원 시인은 <기다림>에서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라고 읊었다. 가수 이승열은 같은 제목으로 ‘미칠 것 같아/ 기다림 내게 아직도 어려워/ 보이지 않는 니가 미웠어/ 참을 수밖에/ 내게 주어진 다른 길 없어’라고 노래했다. ‘기다림’이 어렵기 때문에 시인과 가수는 그렇게 노래했을 것이다.

지금은 아련한 추억거리가 된 옛일을 떠올리게 해 준 모자가 고맙다. 특히 아이 엄마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기다림’이라는 낱말이 다가왔다. 넘어진 아이가 일어날 때까지, 또 조금의 거리를 두고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준 엄마와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나 옷을 추스르고 엄마 품에 안긴 아이였다. 기다리는 엄마와 엄마의 그런 자세에 부응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엄마와 아이가 이런 관계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왔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가치

영화 <모아나>로 보는 ‘자율성’의 힘



이번 호에 다룰 영화는 한 소녀가 고향을 구하기 위해 전설 속 영웅 마우이를 만나 모험을 떠나는 내용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입니다. “난 공주가 아니에요”라고 당당히 외치는 매력적인 주인공이죠. 모아나는 바다 건너 생명의 신에게 심장을 되돌려주고 죽어가는 바다와 고향을 구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모아나의 아버지는 딸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 그녀가 바다로 나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 그녀를 바다로 나가게끔 한 것은 바로 모아나의 할머니입니다.

모아나 아빠가 옳았어요. 바다는 위험해요.

할머니 그래? 알았다. 그럼 마을로 돌아가렴.

모아나 (마을로 돌아가며) 왜 저를 말리지 않으세요?

할머니 그건 네 의지잖나.

할머니는 모아나에게 단 한 번도 “넌 바다로 나가야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이지요.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설득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선택해야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학창시절 스스로 ‘이제 공부 좀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책상에 앉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방문을 열고 “공부 안 하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한 번씩은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 괜히 마음이 배배 꼬이면서 딱 공부하기 싫어졌던 기분! 저만 그랬나요?

사람은 누구나 일방적인 명령으로 본인의 자율성이 손상당하면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거부감 없이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설득하고 싶다면, 그 방향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상대방 본인이라고 느끼도록 대화해야 합니다. 영화에서 테카의 공격을 받고 마우이가 떠나버리자 모아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할머니는 그녀에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지요.

모아나 전 노력했어요. 더 못하겠어요.

할머니 네 탓이 아니다. 너에게 너무 무리한 일을 시켰구나. 집에 갈 준비가 된다면 나도 함께 하마. (모아나가 망설이자) 망설여지니?

모아나 모르겠어요.

할머니 ♪♪ 그 섬의 소녀는 매우 특별하단다. 너의 바람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 ♪♪ 모아나 정말 장하구나. 스스로 돌아보렴.

모아나 저요? ♪♪ 스스로 이곳에 이르렀네. 그래 나는 특별해. 내 안의 목소리가 나를 이끄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헤매지 않게 ♪♪

설득에 있어서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죠. 첫 번째, 최종 선택안을 복수로 제시하세요. “살 빼야지”가 아니라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하거나 먹는 양을 반의반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싶니?”라고 묻는 것이죠. 상대방은 둘 중에 더 선호하는 방법을 고를 것이고 그 선택은 스스로 한 것이므로 지키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최종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상대방의 기여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세요. “동생이랑 여행 다녀와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천천히 네 말을 듣고 보니, 동생이랑 여행 다녀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때니?”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동생이랑 여행가는 문제를 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느끼고 그 긍정적인 느낌은 ‘그래, 이 상황이 납득이 되네!’라며 자기 주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선비의 고고함 담긴 난초그림, 그 향기 천리가네



석파 이하응(대원군)의 <묵란> 19세기. 간송미술관.
입체감과 공간감을 잘 살린 대표적인 묵란도이다.

사군자(四君子).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주 들어왔던 단어입니다. '매난국죽' 이렇게 되며 암기하곤 했는데요. 사군자의 근원은 어떻게 될까요?

사군자라는 명칭은 중국 명대(明代)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림의 소재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본디 시문(詩文)에 널리 쓰였더랬지요. 여러 식물 중에서도 매화·난초·국화·대나무가 사군자로 꼽힌 까닭은 상징성 때문입니다. 매화는 한기가 남아 있는 초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며 만물의 태동을 알려주지요. 난초는 깊은 산중에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국화는 가을을 더욱 빛내줍니다. 대나무는 한 겨울에도 꼳꼳하게 푸른 잎을 유지하고요. 이 같은 의연함이 군자가 갖춰야 할 '덕(德)과 기품'을 상징하기에 사군자로 선발(?)된 겁니다. 선비들이 호모해온 가치와 맞닿아 있어 시의 소재로, 묵화(먹그림)의 소재로 사랑받은 거지요.

조선 중기의 이정, 오달제, 어몽룡 같은 사대부 화가들은 묵매, 묵죽화를 즐겨 그리며 내면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사군자의 양식적 전통이 수립됐지요. 조선 후기에는 김정희, 조희룡에 의해 사군자가 절정에 이릅니다. 이어 김규진, 조선진, 허유, 이하응, 민영익이 새로운 구도와 필치로 사군자를 계승하지요.

추사 김정희(1786~1856)는 난초 그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답니다. 그의 '불이선란'은 무심하게 뻗어나간 난초 잎들이 칼칼한 글씨들과 어우러져 높은 경지를 보여줍니다. 거창다운 솜씨입니다.

난초는 흔히들 '그린다' 하지 않고 '친다'고 하지요. 붓에 먹을 듬뿍 묻혀, 날렵한 난잎을 쓰윽쓰윽 그어 가면 될 듯하지만 법칙이 꽤 까다롭습니다. 난잎의 시작은 못대가리처럼, 끝은 쥐꼬리처럼 그려야 하고, 가운데는 사마귀배처럼 도톰해야 한다네요. 잎이 교차하는 곳은 봉황의 눈을 닮아야 하



석파 이하응(대원군)의 <지란도>. 19세기. 개인소장.
더없이 미니멀하지만 똑 떨어지는 걸작이다.



운미 민영익의 <목란>. 서울대박물관.
고고하면서도 청초한 난초를 매혹적으로 표현한 수작이다.

고, 잎이 뻗어나갈 때는 세 번의 붓 꺾임이 있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데도 조선 말기에는 난을 치는 선비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흥선대원군 이하응(1820~98)은 묵란에 폭 빠져 지냈지요. 격변기 왕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파락호처럼 기행을 일삼고, 어린 아들(고종)을 왕위에 올린 뒤에는 막후에서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의 난초 그림은 격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도 스승인 추사로부터 제대로 수련을 받았기 때문일 듯싶네요.

석파石坡 이하응은 불우한 청년기를 보낼 무렵 추사에게 글씨와 그림을 배우며 예술적 재능을 고양시켰습니다. ‘조선 제일의 서예가’인 추사의 예술세계를 깊이 흠모하던 석파는 30대 때 이미 빼어난 난초 그림으로 일가를 이루기 시작했지요. 추사도 석파의 묵란만큼은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북동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석파의 <목란도>를 볼까요? 오른쪽 화폭을 짝 채운 흰칠한 난초들이 왼편으로 힘차게 잎을 뻗었습니다. 짙은 먹으로 그려진 세 줄기 난은 알맞게 간격을 유지하며 큰 키를 멋지게 드리우고 있네요. 반면에 옅은 먹으로 표현된 키 작은 난은 한결 부드럽습니다.

전면의 길고 힘찬 난, 뒷줄의 낮고 부드러운 난이 화면에 공간감을 만들어주고 있군요. 입체적 구성이지요. 향기를 뿜어내는 꽃대들 역시 왼편으로 기울어져 있어 마치 합창을 들려주는 듯합니다. 화폭 끝에 석파가 써넣은 화제(畫題)도 ‘같은 마음의 말은 그 향기가 난(蘭)과 같다’입니다.

석파의 <지란도>도 손꼽히는 걸작입니다. 그림 속 난초는 홀잎이지만 화폭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젖무덤처럼 봉긋하게 솟은 난잎 아래로 동그랗게 말린 지초가 보이는군요. 난초와 지초가 함께 있으니 그야말로 ‘지란지교’입니다.

조선 말기의 개화사상가이자 문신인 운미 민영익(1860~1914)도 묵란에 있어 석파에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석파와 운미는 난초 그림으로 쌍벽을 이뤘지요.

운미의 난초 그림은 난 잎의 끝을 뚫듯하게 치는 건란(乾蘭)입니다. 석파의 난이 끝은 날렵하고 중간은 오동통하니 물기를 머금은 것과 대조를 이루지요. 대다수 사대부 묵객들과는 달리 운미는 자유분방하게 난초를 표현했습니다.

운미의 묵란은 붓끝이 획의 가운데에 위치해 필획 모양이 둥근감이 납니다. 또 난잎의 두께가 일정한데, 거의 직각으로 한번 ‘툭’ 꺾이는 것이 독특하지요. 대단히 혁신적인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한두 발짝 앞서가던 인물다운 표현이지요.

사군자의 시작은 중국이었지만 우리 옛 선비들은 저마다 개성을 올곧게 드러내며 멋진 사군자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고하면서도 청초한 난초를 담백하게 담아낸 묵란도는 가장 돋보입니다. 때로는 애잔하게, 때로는 드라마틱하게, 때로는 아찔하게 그려진 난 잎들은 요즘 다시 봐도 고혹적입니다.

이제 곧 난초가 꽃을 피울 때입니다. 붓을 들고 서툰 솜씨지만 난을 치며, 은은한 묵향 속에 스르르 빠져보면 어떨는지요.

COMMISSIONERS >>> 위원동정



김선남 위원, 원광대 행정대학원장 임명

김선남 중재위원(전북중재부,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이 3월 1일 원광대 행정대학원장에 임명됐다. 석사과정과 최고정책관리자과정을 이끌게 된 김 위원은 취임사에서 “소통능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행정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성우 위원, <언론개혁의 방향과 입법과제> 세미나 토론

지성우 중재위원(서울제1중재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개혁의 방향과 입법과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언론자유와 책임구현을 위한 언론개혁 방향’과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 고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손관승 위원, <투아레그 직장인 학교> 발간

손관승 중재위원(서울제6중재부)이 3월 20일 신간 <투아레그 직장인 학교>를 발간했다. 이 책은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일과 직업의 개념에 대해 얘기하며 기술이나 아이디어, 지식에 멋진 스토리텔링을 결합할 줄 알아야 경제적인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상훈 위원, <2017 제주관광포럼>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위촉

오상훈 중재위원(제주중재부,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이 3월 21일 제주 웰컴센터에서 열린 <2017 제주관광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의에서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제주관광포럼은 제주관광의 현안을 공유하고 경쟁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될 예정이다.

오성우 부장, <2017년 민사 단독재판장 워크숍> 발표

오성우 중재부장(서울제2중재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3월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17년 민사 단독재판장 워크숍>에 참석했다. 오 부장은 <항소심에서 본 민사 1심 재판>을 주제로 발표하며 “1심 재판부는 사건 쟁점을 충분히 부각시키고 각 쟁점에 대해 충실하게 증거조사를 한 뒤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중세 위원, (사)한국체육언론인회 회장 취임

이중세 중재위원(서울제7중재부)이 3월 30일 제8대 한국체육언론인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서울 중구 체육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뒤 이 위원은 “체육언론인회의 활성화와 스포츠 저널리즘 연구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위원은 동아일보 체육부장, 스포츠동아 이사를 거쳤다.



NEWS >>> 위원회 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선심위는 3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운영되며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게재되는 대선 관련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여부를 자체심의하는 한편, 후보자로부터도 직접 시정요구를 받아 심의,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언론중재> 봄호 발간

연구팀은 3월 30일 <언론중재> 2017 봄호(통권 142호)를 발간했다.

제1차 외국인연수 실시

교육운영팀은 3월 30일 위원회를 찾은 태국 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서 강사로 나선 교육콘텐츠팀 강항원 변호사는 언론중재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제1회 웹툰 공모전 수상작



지혜의 힘

글/그림 오진경



지혜의 힘

글, 그림 오진경



언론중재위원회
Korea Commission for Conciliation and Mediation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 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에
수록할 일반 연구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연구
논문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

응모
자격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등

원고
마감

2017년 5월 15일(월)

논문
접수

이메일접수(journal@pac.or.kr)

※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조하시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02)397-3042로 문의 바랍니다.

언론평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선거기사심의위원회 TEL 02)397-3151~4 FAX 02)397-3089